

전주 옛 4대문안 역사도심 개발 제한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조성하는 구도심 100만평 중 핵심지역인 옛 4대문안 역사도심 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천년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간직된 옛 4대문안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14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지역(148만㎡)에 대해 7층 이상의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옛 4대문안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을 하반기 전까지는 각종 건축행위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 받게 된다.

이번에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옛 4대문안 역사도심지역은 1970~1980년대

시, 역사문화지원 체계적 보존 위해 올 하반기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다양한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성곽 및 옛길 등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우선 시는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도심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또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는 4층에서 6층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3층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들

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이번에 제한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신축은 물론, 증축과 개축 모두 해당된다.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와 공작물 설치가 제한되는 것.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 제한층수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과 타 지역 사례 조사, 현장 조사,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했으며, 이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옛 4대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 있다. 또, 전주부성 성곽길과 일제강점기 주요건물, 미래유산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많은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장소와 시대별 도시 변화과정의 고스란히 스며있는 건물들도 많다"라며 "이처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아시아 문화심장의 핵심공간인 역사도심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의회, 황선철 신임 고문변호사 위촉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률적 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로 황선철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황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법규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전주시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전북정보통신감사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황 변호사가 그동안 쌓아온 법률적 전문지식



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자문과 지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일괄 하도급 강요' 부안군청 비서실장 항소심도 집유

부안군 출포만 해안제방 탐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건설업체 대표 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군청 건설교통과장 박모(56)씨 등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모(5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들과 채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두달 간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 원 상당의 출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B업체 대표에게 "A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채씨는 2015년 8월 25일 일괄하도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업체 자금 5억 8000여만원으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지난 14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손주현 전주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 25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 조사 실시

전주시는 오는 25일까지 '2017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는 구역별 구조와 판매, 교통동향을 분석해 시장의 경기를 파악하고,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원 14명을

선정해 조사대상인 관내 전통시장(6곳)과 등록된 상점가(5곳)로 조사원이 직접 대상업체를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사업체명과 산업분류 등의 일반부문, 대표품목과 영업시간, 고객 수 등의 작성부문 등 총 2개 부문 15개 항목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대상사업체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결과를 올해 6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경찰, 진안군청 압수수색... 골재채취 업체 묵인 혐의로

경찰이 진안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진안군 공무원들이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안군청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진안군 안전재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진

안군 한 골재채취업자가 허가 없이 진안군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하는 과정에 진안군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안군청과 골재채취업체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했고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품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한옥마을 문화축제 개최 '제동'

전주시, 한옥마을연합회 협조요청에 교통 불편 소음·약취 등 주민 불편 우려로 '불허' 통보

전주시가 한옥마을연합회의 판매행위를 포함한 한옥마을 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불허인정을 통보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연합회의 한옥마을 문화축제를 위한 협조요청에 대해 지난 12일 축제 개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한옥마을 문화축제 개최 시 장기간 교통 불편, 소음, 쓰레기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부스 유상판매, 문화행사와 관련 없는 농특산물 판매 등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불허 인정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지등, 국악 거리공연, 예술공연, 전통체험 등 문화행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농특산물, 향토기업 제품, 전라북도 특산물 부스의 경우 참여지역, 업체, 품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또 당초 150개의 부스를 80개로

줄이고 도로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더라도 돌화분, 화단 등 도로 시설물로 인해 부스 설치 시 차량통행,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농특산물 등 부스 70여개를 전기, 수도, 청소 등 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수수할 경우 민원 발생, 책임 소재 등 문제가 따르며, 원칙적으로 부스 유상 임대와 판매 행위는 시의 방침에 맞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교길 등 행사장소 주변은 252세대 48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장기간의 차량통행, 소음, 쓰레기, 약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연합회 측에 전달했다. 또 일반적인 문화행사나 행사 기간은 국제행사를 제외하고 3~4일 이내로 추진되지만, 한옥마을 문화축제는 1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너무 과도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